

# 상사와 단둘이 회식 후 귀가중 뇌출혈...법원 "업무상 재해"

## 회식 후 귀가 중 쓰러져 뇌출혈 사망 "5명 참여가 계획...직원 대표로 참석"

직장 상사와 단둘이 회식한 후 귀가하던 중에 쓰러져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6월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0월22일 직장 상사와 회식한 후 귀가하는 중에 쓰러져 치료를 받았다. 뇌

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치료 끝에 지난해 3월 15일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A씨가 사망했으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7월5일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측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회식이 아

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A씨가 직장 상사와 둘이서 음주한 것을 회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1심 법원은 A씨가 직장 상사인 부장과 둘이서 회식한 것은 맞지만 이 회식 역시 업무의 연속 선상에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 사망의 원인이 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식에 참석한 상사와 개

인적인 친분이 없어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회식 자리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5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2~3차례 미뤄지며 다른 사정이 있는 직원을 대표로 A씨가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사의 주량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많이 마시는 편이어서 A씨가 여기에 맞춰 마시던 중 불가피하게 과음한 것으로 보이며 A씨가 독자적으로 과음한 것으로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한걸음 다가온 가을 절기상 입추인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 덩굴 터널에 매달린 호박이 벌에 영글어가고 있다.

## 열대야 속 광주 선운지구 일대 정전...900여 가구 불편



연일 폭염 특보가 이어지는 광주에서 새벽 시간대 아파트 단지에 전력 공급이 끊겨 9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 아파트 자체 전력 설비 문제로 추정...2시간 만에 완전 복구

7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 한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정전으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200여 가구가 2시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 방방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는 등 크고작은 불편을 겪었다. 또 인접한 다른 아파트 단지 2곳 700여 가구도 일시 정전이 발생, 30분 간 불편이 빚어졌다.

한전은 긴급 복구 지원 작업을 벌였으며, 신고 접수 2시간 만인 오전 5시 전력 공급이 재

개됐다.

한전은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하는 전력 설비에서 문제가 발생, 주변 일대에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주는 지난달 28일부터 열흘 연속 밤사이(전날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밤 광주 지역 최저기온은 27.3도였다.

기동취재본부



## 교통사고 잦은 어린이보호구역 40곳 정비

### 작년 85건 사고로 86명 사상...66.3% 보행중 사고 당해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40곳이 연내 일제 정비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19일 12일간 전국 12개 시·도 32개 시·군·구 어린이보호구역 40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2건 이상 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1만6759곳의 0.24%를 차지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이 위치한 곳은 서울과 경기 지역이 각 8곳으로 가장 많다. 경북 6곳, 인천 4곳, 대구 3곳, 부산·대전·세종·충남 각 2곳, 충북·전남·경남 각 1곳이다.

이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85건이다. 지난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623건)의 16.3%에 달한다.

이 곳에서 2명이 숨지고 8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수(565명)의 15.2%나 된다.

사상자의 66.3%인 57명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였다.

학년별로는 3학년 학생의 교통사고 비율이 23.3%(20명)로 가장 높았다.

월별로는 개학기와 맞물리는 4월과 8월에 각각 11건(12.9%)으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방과후 또는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낮 12시~오후 8시 사이'가 70건(82.4%)으로 가장 많아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종합 분석한 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오후석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의 1% 미만에 불과한 40곳에서 16.3%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했을 때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